

표정두 열사 추모비 5·18기념공원 이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가 18일 광주 5·18기념공원으로 이전했다.

표정두 열사 추모사업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 열사 추모비 이전 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열사의 정신이 오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됐다"며 "여전히 지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과 편향에 맞서는 용기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추모비가 5·18기념공원에 다시 선 오늘 우리는 열사의 정신을 다시 되새긴다"며 "잔인한 국가폭력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시민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열사는 1983년 호남대 무역학과에 입학, 군 제대 후 1985년 3월 복학했으나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하면서 이듬해 4월 미등록 제적됐다.

1987년 3월 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미국 정부의 책임을 외치며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다.

표 열사의 추모비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1991년 학생들이 기금을 모아 호남대 상촌캠퍼스 본관 앞에 세웠다. 2015년 호남대가 교정을 광주 광산구 서



18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열린 표정두 열사 기념비 이전 제막 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학생 진상규명 촉구 1987년 美대사관 앞 분신

이용섭 시장 "오월역사 바로세우는 단초됐다" 강조

봉캠퍼스로 옮기면서 4년 넘게 방치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서 박관현·조성만·박

관주시는 표 열사가 5·18 유공자는 아

니더라도 5·18 관련 활동으로 희생된 만큼 5·18 관련 시설물인 기념공원에 표 열사의 추모비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27일 표정두 열사추모비 5·18정신을 계승한 민족민주열사들을 조명하는 학술 포럼을 5·18 기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광주 광산구 'DMZ 탐방열차' 운행 취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고자 광주 송정역과 파주 도라산역을 왕복하는 특별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

광주 광산구는 9·19 선연 1주년을 기념해 20일 예정했던 제2회 광산통일열차운행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발생한 ASF의 발병 상황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행 연기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탐승권을 예매한 130여명에게 개별 연락해 운행 취소 배경을 설명하고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협의해 비무장지대(DMZ) 탐방 등 한반도 평화 기원 행사를 이어가는 특별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첫 열차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려 지난 4월 운행했다.

열차 운행 취소와 함께 광산구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ASF 확산 방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도심 속 농촌이 공존한 광산구에는 7개의 양돈 농가가 있다. 긴급 전파 예방 결과 이들 농가의 돼지 7천833마리는 현재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금은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내려진 ASF의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며 "열차 탐승권을 예매한 주민께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광산=주영탁 기자 htjoo@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오픈

동림동 옛 농산물직거래장터 리모델링
검진실·상담실·가족 카페·쉼터 등 갖춰

지역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가 광주 북구에 설립됐다.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16일 치매안심센터(사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보건소에 임시로 설치·운영돼왔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천300㎡ 규모로 동림동에 소재한 북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리모델링해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가족카페 등 전에 없던 시설을 갖췄다.

주요 업무로는 지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조호 물품·배회 인식표 제공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센터장을 포함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5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북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북구 보건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두암보건지소를 권역별 센터로 운영해 보다 가까이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광주 북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의회동 신축·충효분교 진입로 확장공사 등 현안사업 추진 탄력 기대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정진호가 켜졌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 지역 현안사업 3개와 재난안전사업 1개 등 총 4개 사업을 위해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현안 또는 재난·안전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북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지체돼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회복지비 국비 차등 보조율제 건의 등 국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 교부받은 사업비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6억 원 △본촌산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10억 원 △북구 의회동 신축 16억 원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7억 원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를 정비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촌산업단지 내 노후 도로와 인도를 정비해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주변 하수도를 정비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와 싱크홀 발생 등 재난·안전 위협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간부공무원에 책 선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추석 명절 즈음, 구청 간부공무원들에게 책을 선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가 선물한 책은 임흥택 작가가 쓴 '90년생이 온다'이다. 이 책은 과거 세대의 경우 충성심은 회사에 대한 것이었지만, 90년대생들에게 충성심은 자기 자신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으로 충성의 대상과 의미가 달라 세대간 갈등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90년대 생들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충성도에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아시아에너지경제

새롭게 도약하는
아시아에너지경제가
능력있는
지역사·군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10-9192-8048
팩스 : (062)227-0084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